[번역_0922_]

말리 NDA, GCF 방문하여 증여협정(grant agreement) 체결

출처 = http://news.gcfund.org/mali-nda-signs-grant-agreement-during-visit-to-gcf-headquarters/

2015.9.18, 송도 / 말리 정부 국가지정기구(NDA)가 9월 18일 송도에 있는 GCF 본부를 방문하여 GCF 기금사용 준비지원 프로그램(또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을 위한 증여협정(gran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은 헬라 쉐흐로흐 GCF 사무총장과 말리 NDA 환경·위생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Sanitation) 아부바카 다이바트(Aboubacar Diabate) 환경·지속가능발전청(Agency for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국장이 서명하였다.

이로써 말리는 4월 국가기후워크샵 등 준비활동 지원을 위해 분배된 무상증여 48,000 달러를 포함하여 GCF로부터 총 300,000 달러를 역량강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말리 정부는 GCF와 말리 간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확보하며 GCF 자금을 사용을 위해서, 환경·자속가능발전청 내에 GCF 전담팀을 신설할 것이다.

GCF 전담팀에는 다양한 기후·발전 영역의 GCF 스페셜리스트 및 전문가가 합류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전담팀은 말리의 기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GCF의 투자 및 결과관리 프레임워크와 맞춰보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GCF가 고려할만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리는 경제·사회 녹색화 달성을 위해 국가 전략을 수립한바 있다. 또한 이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투자계획에 GCF자금을 공급하여 패러다임 전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역량강화 활동은 이러한 목표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쉐흐로흐 GCF 사무총장은 "말리는 GCF 역량강화 지원 접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하다. COP21까지 남은 기간 동안 15개 이상 국가들과 증여협정 체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GCF는 증여협정 전기간(2016년까지) 동안 말리 역량강화 활동 및 그 결과를 모니터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GCF는 16개 국가 역량강화 활동에 총 42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16개국은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베닌(Benin), 볼리비아, 코모로스,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크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디오피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말리, 르완다, 태국, 토고, 바누아투 이다.